

이렇게 들었다

역사 왜곡

바로 지금이 참회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도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물이 있을 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시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중일아함경>**

말로는 죄를 드러내어 참회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이 진실로 그러하지 못한다면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착함을 구하기가 어렵다. **<잡아함경>**

이 두 경전의 말씀은 역사를 왜곡하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일본에게 참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부처님께서는 설사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착함을 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셨다.

살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다. 자신의 잘못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합리화에 급급해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이더라도 더욱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일본 도쿄대(東京大) 졸업식에서 이기준 서울대 총장과 하스미 시게히코 도쿄대 총장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한국소리로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한 것은 분명 지성인다운 용기는 행동이었다.

이 총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는 잊혀질 수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다"며 "양국간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스미 총장도 "일본은 36년간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고 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자신이 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과거 역사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결론 짓는 자세가 살아있는 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은 일부 일본인들이 말하는 자학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 세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명에"라고 밝혔다. 참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그런 예는 또 있다. 지난달 11일 일본 샌다이 인근의 절 도센인에서 열린 법회에서 주지 사토 다이켄 스님은 "근대 일본의 가장 큰 잘못은 아시아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한·일 합방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는 달리 일본의 지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며 반성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들을 계기로 다시는 역사 왜곡과 같은 비합리한 행동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일본의 지식인들이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김주일 기자

새만금 간척 해서는 안되는 이유

물자 세상보기

새만금사업을 우려하는 종교인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찼다. 종교인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이미 정신적으로 승리를 예고한 것이다. 그곳에는 소영웅심리에서 발동하는 추함이 발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을 사이에 두고 벌어져온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논쟁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자연에 부여되어 있는 법칙은 다수결이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랬고, 양측의 주장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1997년 네이처라는 잡지에 게재된

해안습지의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그 이전에는 갯벌에 대해서 무지했었다는 투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해안습지, 즉 갯벌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미 1950년대의 일이었다고, 1970년대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습지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72년 발표된 해안역관리법은 해안습지, 해안사구, 모래해변의 보전을 해안역 관리의 주요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 즉,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을 장려하던 정책에서 직접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흔히 간척의 나라로 소개되는 네덜란드의 간척은 전통적으로 바다에서 밀려

선진국 습지개발 규제

경제효과 기대 이하

자연보호 정책 우선

오는 폭풍과 해일을 막아내기 위해 모래둑을 쌓는 것이었다. 그 배후의 습지가 메워지면 폭조지와 농경지로 이용해 왔다. 주다지 지구도 사주섬(배리어 아일랜드)으로 보호되어 있는 래구운의 일부를 간척한 것이기 때문에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새만금지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만금사업 주체는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반

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삼각주를 보자. 삼각주 상류에 댐을 짓고 나서 삼각주가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범람과 함께 퇴적되던 토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삼각주는 낮아지면 또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크기와 높이를 유지한다.

새만금 지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각주와 유사하다. 방조제에 막혀 토사의 퇴적이 중단된다면, 방조제 내측의 간척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간척지의 퇴적물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아서 불균등 압축이 일어난다면, 또 어찌되는가.

토사가 수로나 항구에 퇴적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토사의 퇴적은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토사의 퇴적은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토사의 퇴적은 더욱 심각하다.



유근배 서울대 교수 지리학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률이 급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의 1백년 확률의 초대형 해일도 빈번해질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온도가 올라가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세력을 잃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태풍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한반도로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써 건설해 놓은 간척지는 심각한 현령에 놓일 것이다.

우리는 시화지구나 낙동강하구언 등 여러 대형국책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큰 비용을 치르고서도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백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배워지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가 3월 28-29일 법우사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조계종 선거제도 및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발표자 덕운스님 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공

명선거 실현을 위한 조건'(발표자 임명재 중앙선거관리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열린마당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방향

“조정위 구성...후보단일화”

덕운스님 (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를 거북스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승가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거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총회의원·본사주지·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총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 직전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사주지를 당해 선거조정위원장으로 하고, 본사주지 자격(승랍 25년, 연령 45세 이상)에 준하는 재직 비구승을 당연

직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조정 즉, 단일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본사주지의 책임 하에 선거를 치른다면 불평할 명분이 없으리라 본다.

본사주지 선거의 경우도 총회의원 선거 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경선이 될 경우 원로의원과 원로회의 고문스님들로 하여금 사전 조정토록 하면 된다.



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 수행자 집단의 선거운동은 어색할 뿐더러 품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신원관계와 공약을 선거인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종단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위계질서상의 예우 차원에서 중진 이상의 스님에게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자유·공정성등 구현”

임명재 (중앙선거관리국장)

종교지도자를 모시는 방법은 오랜 전통과 관습이 있다. 물론 만장일치에 의한 추대가 어느 경우든 가장 바람직하다.

선거는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성원의 통합 기능 등 순기능도 지닌 필요악과 같은 제도이다.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국민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사·가치·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하여 집약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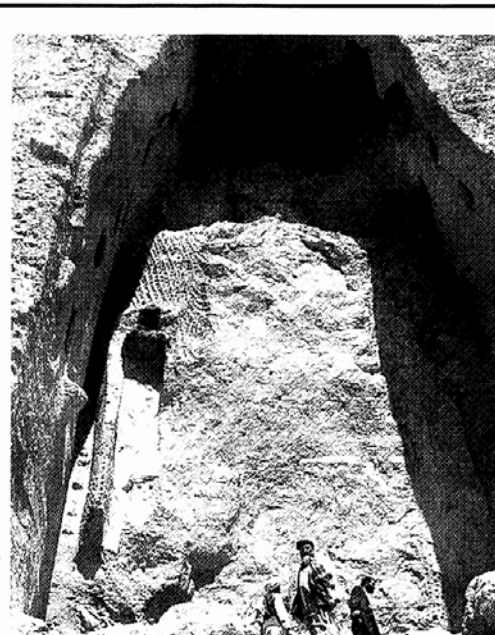
선거의 '이익표출·집약기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선거 절차를 거쳐 정치지도자를 배출시키거나 총원한다.

선거에 있어서 달성되어야 할 지도이념은 △선거의 자유 △공정성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 등이다. 이 중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절대적 가치



규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기초로서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합리성 등은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법의 제정이나 개정시 또는 선거법의 집행시에 반드시 지켜지고 달성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규범요소이고, 경제적 합리성이나 합법성, 민주성 등은 선거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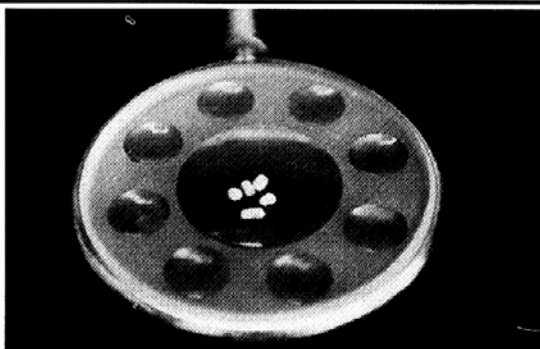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 왼쪽 팔 부분에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미안 석불 복구 불가능

스리랑카선 "복원 추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의 모습이 3월 26일 공개되면서 석불복구에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현장은 거대한 돌무더기를 연상시킬 뿐 석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유네스코는 파괴정도가 심해 석불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대통령 보좌관 발표를 통해 바미안 석불의 진해를 사들여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 스리랑카 민간 불교단체인 '마하 보드히'는 자국 정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수도 콜롬보에 바미안 석불 축소판을 세우겠다고 제의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 정골사리는 미얀마 불교 성이 소장하고 있는 진신사리로 지진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 수우파에서 나온 것이다.

우소비타스님은 현 미얀마 불교계 제1위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큰 스님. 참고로 현 미얀마 수상은 불교계 47서열 다음인 48번째 제임.

부처님 정골사리 정대불사 및 친견법회 100일기도 봉행

참으로 희유한 인연으로 이천오백여년의 부처님 당시 불교문화가 재현되고 있는 미얀마 불교 종교성 원로 의회 의장 우소비타(종정)스님으로부터 종교성에 소장된 부처님 정골사리를 기증 받아 사리친견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뜻있으신 불자님께서 많은 동참바랍니다.

안 내

- 임 재 법 문 : 전 동국대학총장·해인사 주지 조계종 원로의원 가산불교문화 연구원장 지관스님
- 임 재 : 2545년 4월 18일(음력 3월 25일) 10시 30분
- 일천견법회일 : 2545년 5월 1일 (음력 4월 8일) 10시 30분 (부처님 오신날)
- 회 향 : 2545년 7월 27일 (음력 6월 7일) 10시 30분 (사리친견 및 회향)
- 기도접수전화 : (031)444-5935~6 FAX 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인양불교대학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 (031)444-5935~6 FAX 444-5655

제4기 안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본 지장선원에는 부처님 정법을 배워 기도와 참회로써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혀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배워 실천 수행하기 위하여 대덕 큰 스님과 훌륭한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불교대학을 개강하여 기초교리, 기도, 참선 수행법을 지도하오니,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본 대학 교수진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학총장 지관 스님 (현)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장
- 지장선원 회주,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 동국대학 정각원장 법산 스님 ·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 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태원 스님 · 전국구니협회 회장 광우 스님
-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
- 동국대학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교수
- BBS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진행자 김병조 탤런트
- BBS불교방송 「신행 365일」 진행자 김용림 탤런트

강의 일정표

- 청영준 탤런트
- 입학 예정일 : 2001년 6월 5일
- 졸업 예정일 : 2001년 12월
- 강의내용 : 기초교리, 기도, 참선수행, 불교학개론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의료 : 100,000원(6개월)
- 접수처 : 본 대학 사무실
전화 (031)444-5935, 5936 팩스 (031)444-5655

안양불교대학경전반 2기생 모집 안내

- 입학 예정일 : 2001년 6월 5일
- 졸업 예정일 : 2001년 12월
- 강의내용 : 천수경, 금강경, 참선수행법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강의료 : 100,000원(6개월)
- 접수처 : 본 대학 사무실
전화 (031)444-5935, 5936 팩스 (031)444-5655
- *동참하실 분은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